

# 대형건설사, 소형 주택에도 '군침'

### 금호·우미건설 등 브랜드 파워 앞세워 공략 지역 중 소형 건설사 "발붙이기 힘들다" 한숨

금호건설·우미건설 등 광주·전남 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형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관련 규제도 연이어 완화되면서 주저하던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을 비롯해 우미건설, 대우건설, GS건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수요층 분석을 강화하면서 소형주택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날 소형 주거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전문 브랜드를 '쁘띠-린'으로 정하고 소형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쁘띠-린은 '규모가 작은, 사랑스러

운'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쁘띠(petit)'와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린(Lynn)'의 합성어로 '작고 사랑스러운 집'을 뜻한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우미건설은 소형주택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의 소형주택 개발사례를 연구해왔고 최근 일본 주택시장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4시간 에프터서비스(A/S) 전담팀을 설치하고 앞으로 소형주택 입주자에게 임대 알선 및 호텔식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호건설은 '쁘띠메종'이라는 브랜드를 내놨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 서울에 지주공동방식으로 임대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수익성이 낮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금호건설은 들어오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역세권에 60㎡(18평) 안팎의 소형 주택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대형 건설사 중 처음으로 이달 말 경기 성남에 타운하우스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145채를 내놓는다.

GS건설도 최근 소형 주택 평면 5건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도심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 주택시장에 본격 진출키로 했다.

LH도 지난달 1~2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역세권과 상업·업무지역 대학가 등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 전용면적 50㎡ 이하의 '스튜디오 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주택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가구 내 모든 벽을 제거해 냉방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벽 속

에 매립해 빌트인 방식으로 꾸민 주택이다. 소호, 벤처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정보기술(IT) 시설도 함께 배치가 가능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수의 사무처장은 "중형 아파트를 내놔야 팔리지 않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부담돼 대형 건설사들이 소형주택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독신가구의 증가 등으로 수요자 패턴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형 건설사들의 소형주택 시장 본격 진출로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형 건설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소형 건설사의 한 대표는 "대형 건설사가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밀어붙이면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소형주택 시장에서도 발붙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년 연속 보험왕 차지한 PCA생명 광주지점 김행곤 설계사

### "고객 자산 늘어날때 큰 보람 느낍니다"

"고객 자산이 곧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고객들의 자산이 늘어날 때 가장 보람있어요." PCA생명 광주지점의 김행곤 보험설계사(FC·Financial Consultant)는 보험업계에 우수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인 3W를 225주째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3건 이상의 계약을 4년째 맺고 있다는 뜻이다. 2000여명에 달하는 PCA생명 보험설계사 중 유일한 기록이다. 또 한 달 동안 12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달간 이뤄진 역대 최다 계약건수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3년 만인 2008년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들의 최고 영예인 연도대상 2연패를 달성했다.

이뿐 아니다. 화려한 기록의 보

유자 담겨 한국보험설계사 40만명 중 20~30명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TOT(Top of the Table)회원인데다 PCA생명 보험설계사 중 최상위 등급인 프레지던트 클럽 멤버이기도 하다.

프레지던트 클럽은 보험설계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재직 연수 3년 이상, 직전 1년간 계약 건수 96건, 24회차 유지율 85% 이상, 보유 고객 수 200명 이상, 연간 보험료 3억6000만원 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멤버도 전국에 3명 밖에 없다.

김 FC는 "고객의 수익률 향상과 자산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매년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 비서를 채용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올리는 비결 중 하나다.

이같은 그의 노력 덕분에 그가

관리하는 고객 수만 1000~1500명에 달한다. 이들 고객들의 계약 유지율도 95%를 넘는다.

김 FC는 "보험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상품이 나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은 필수"라며 "성실한 태도로 고객들과 신뢰를 쌓는다면 고객들은 끝까지 믿고 따라온다"고 고객관리 비법을 설명했다. 또 그는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PCA생명 동료와 선후배 FC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열린 '제9회 청자골 강진군 향토특산물전'에 황주공 강진군수(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이장현 광주신세계 대표(가운데), 유제철 광주일보사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강진 향토 특산물 구경오세요"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역 인제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17~21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청자골 강진군 향토 특산물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특산물 전에서는 강진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가공품,

공예품, 청자 등 200여가지 상품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기간 중 강진군 특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착순(100명)으로 프리미엄 호평상(1kg), 버섯 조미료(100g) 등도 증정한다.

이에 앞서 백화점은 지난 16일부터

1층 갤러리에서 '강진청자 국내 순회전'을 열고, 강진관요(官窯)의 청자삼강운화문매병(국보 제68호), 자과형화병(국보 제94호), 청자삼강운화국화문합(국보 제220호), 청자투각칠보문항로(국보 제95호), 청자사자유개항로(국보 제60호) 등 국보 재현 대표작 50여점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21일까지 열리며 전시작품들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1만5000원하던 배추값 포기당 990원으로 '뚝'

지난 9월 말 포기당 최고 1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이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이어가며 990원까지 내렸다. 배추 산지와 계약재배로 대량의 배추를 확보한 대형마트들이 갑작스럽게 찾아 왔다.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배추 10만 포기(1포기 약 2.5kg)를 준비하고 19일까지 이틀간 포기당 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1인당 3포기씩 살 수 있으며 준비된 10만 포기가 다 팔리고나면 199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24일까지 진행되는 '김장 대잔치' 행사에서 2.2kg짜리 배추 한 포기 1500원에 판매한다.

산지 계약 재배를 통해 매일 총 100만 포기를 이븐 행사에 푸는 홈플러스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하루에 살 수 있는 구매량을 6포기로 한정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규모 김장행사를 준비 중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조만간 저렴한 가격에 배추를 대량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 배추값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韓 물가상승률 비해 금리 여전히 낮아"

블룸버그통신 지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을 고려하거나 가계

지출을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준금리가 2.50%로 0.25%포인트 올랐지만 이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콩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의 에릭 루스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이제야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통화정책의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 "수험표 들고 오면 선물이 팡팡~"

#### 유통·외식업계 '포스트 수능 마케팅' 푸짐

지역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포스트 수능 마케팅'에 돌입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9~21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구매고객에게 일부 브랜드 제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이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탭'(5대)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21일까지 수험표를 소지한 고객에게 일부 브랜드의 제품을 10~20% 할인판매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저금통, 다용도 가방 등

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수험생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연다.

21일에는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게 타로카드점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당일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릎담요, 목 베개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구매 영수증이 있는 수험생 고객에게 씨너스시네마 전대점 영화초대권을 2매씩 증정한다.

홈플러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들에게 가전, 헤어숍, 서점, 푸드코트,

패션잡화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마트도 18~24일 수험표를 들고 오면 게임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할인 판매한다.

외식업계도 수능마케팅에 나섰다. 도미노피자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는 수험생 모 두에게 할인 쿠폰이나 피자 무료 쿠폰 등을 주는 '수험생 100% 당첨 이벤트'를 벌인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도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출력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케이준 후라이드 치킨'을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풍닷컴**  
(주)평화의 섬 제주여행사

주소창에서 **e소풍닷컴** 을 치세요

■ 제주시 노형동 2292-1번지 현일B/D A동 1층  
■ 등록번호 616-81-32024

**크루즈투어(목포, 녹동출발)**  
**제주도 여행 1박 2일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제주관광)

<p><b>목포출발 2박 3일 89,000원</b></p> <p>★일정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2일째: 오설록녹차유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유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3일째: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유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p> <p>★포함사항: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p>	<p><b>녹동(고흥)출발 2박 3일 89,000원</b></p> <p>★일정 1일째: 녹동연안부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2일째: 오설록녹차유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유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3일째: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유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p> <p>★포함사항: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p>
---	--

※ 1일 한라산등반 + 1일 제주관광 99,000원

호텔 | 팬션 | 렌트카 | 제주배편 예약가능

전화 064-745-0963 (주)평화의 섬 제주 www.esopung.com

씨월드고속웨리 남해고속웨리

**Angelo**  
안젤로 이태리가구 전문점

**OPEN**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대형매장, 지하/365아울렛 전시장, 1층/소파 식탁, 2층/명품관 TEL.062-382-0022